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의 매개적 역할\*

The Mediating Roles of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pport/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hild-related Stress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 김지현\*\*

교수 도현심\*\*\*

Auburn University 인간발달가족학과

박사후연구과정 신나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연구교수 김민정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Master : Kim, Ji-Hyun

Professor : Doh, Hyun-Sim

Dep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Auburn Univ.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 Shin, Nana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Research Professor : Kim, Min-Jung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s of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pport/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hild-related stress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Participants were 389 3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about child-related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dolescents completed scales of maternal controlling/supportive parenting and school adjustment. Results indicated that a direct effect of mothers' child-related stres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was not significant. However,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pport/control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lated stress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 higher level of child-related stress in mothers was associated with a lower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ed by a lower level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others who reported a higher level of child-related stress tended to be less supportive and more controlling, which led to a lower level of school adjust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considering both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in explaini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주요어(Key Words) : 자녀관련 스트레스 (child-related stress), 심리적 안녕감 (psychological well-being), 어머니의 지지/통제 (maternal support/control),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저자 : 김지현 (E-mail : gracy81@hanmail.net)

\*\*\* 교신저자 : 도현심 (E-mail : simdoh@ewha.ac.kr)

## I. 서론

청소년기는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발달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기는 생애주기 중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로 인해 그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학교라는 생활영역에서 개인의 욕구가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학교생활부적응 상태의 학생들은 수업 중에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학업성적 저하로 인해 실패감이 누적되어 자신감이 결여된다. 또한 불안, 절망, 소외감, 고립,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며, 적대감, 공포감, 경쟁의식 등이 누적되어 가출, 무단결석, 음주, 폭력 등의 비행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김동배·권중돈, 2000; 김준호, 1990)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학교붕괴'와 같은 현상이 이미 199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속출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선행변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정은 청소년이 성공적인 정체감을 획득하고 성인을 준비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인 장소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최지은·신용주, 2003).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경험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기능,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부갈등 등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김신애 등, 2008; 김혜진, 2003; 배숙진, 1998; 이강선, 1999; 장영애·박정희, 2008; 조윤미·이숙, 2008), 그 중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류경희, 2003).

특히 청소년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상호작용하는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어머니나 자녀 모두에게 도전적인 시기로 사춘기 발달을 겪는 청소년과 중년기 위기를 포함하는 부모의 변화는 부모자녀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한다. 즉, 부모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탈피하여 독립된 개체로 대우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여 가족내 규정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와 자녀 간에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며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쉽다(도현심 등, 2011). 지금까지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부적응 형태인 공격성 및 불안과 과잉행동을 일으키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저하시켰다(김현미·도현심, 2004; 문혜련, 1999; 유우영·이숙, 1998; Barry et al., 2009). 또한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압박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어렵게 하고 학업성취도를 낮추었으며(이재구·김영희, 2000), 자녀가 일류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학업성적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청소년 비행을 초래하였다(김준호, 1990; 박현선, 1998; 채구목, 1997). 그러나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므로, 양자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심리적 안녕감을 고려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심리적 복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적응 정도를 의미하며 궁극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한다(장재정, 1987; Bryant & Veroff, 1982).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양자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송신영, 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높은 경우 아동이 사회적으로 유능성을 보였다(박서영, 2007). 또한,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학교에서의 사회적, 학업적 기능의 손상에서부터 우울·불안 등의 내면화, 공격성 같은 외현화 부적응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학교생활부적응 문제를 나타내었다(Barry et al., 2009; Campbell et al., 2009; Tompson et al., 2010).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으로 생활만족도와 우울을 포함하여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변인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어온 분야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어머니의 지지는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부모로부터 기본적으로 수용되고 승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아동에게 취하는 행동의 정도를 뜻한다(Thomas et al., 1974). 어머니의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들은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촉진하고 문제행동의 발생을 억제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보고하고 있다(문은식·김충희, 2002; 유안

진 등, 2004; 이경남, 2008; 최지은 · 신용주, 2003; Bean et al., 2003; Dubois et al., 1994; Shek, 1997).

어머니의 통제는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로 구분하여 연구되고 있는데,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을 자녀가 하지 않을 때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거나 자녀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의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소년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1996; Barber et al., 1994). 부모의 감독(parental monitoring)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행동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규칙준수 등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Barber, 1996), 확고하고 일관적인 규칙을 가지고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고(Barber et al., 1994), 자녀가 있는 장소, 활동, 함께 하는 친구 등에 대해 부모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포함한다(Stattin & Kerr, 2000). 일반적으로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어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적응과 부적응으로, 행동적 통제는 정적으로 관련되었다(Barber, 1996; Barber & Olsen, 1997; Bean et al., 2003; Gray & Steinberg, 1999; Morris et al., 200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신감 발달 저해(Steinberg, 2001), 우울이나 외로움 같은 정서적 문제(도현심, 1996; Barber et al., 2005), 그리고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나 비행 등 행동문제(김희화, 2003)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와 달리,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는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유능성 및 학업성적, 또래간 인기도는 높은 반면, 문제행동은 덜 나타났다(김희화, 2003; 박선영, 2009; 황숙영, 2007; Brown et al., 1993; Crouter et al., 1990; Dornbusch et al., 1987; Gray & Steinberg, 1999; Jacobson & Crockett, 2000; White & Kaufman, 199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앞서 살펴본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 더불어 어머니의 지지/통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한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선행변인들로서 연구되어 왔던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지지/통제 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양육행동의 선행변인으로 부모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문혜련, 1999; 하미정 · 장영애, 2010; Putnick et al., 2008)하고 있다. 어머니가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지할수록 자녀를 부적절하게 양육한다는 연구결과들(김현미 · 도현심, 2004; 안지영 · 박성연, 2002; Belsky, 1984)은 양육행동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말해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벌위주 풍조는 일류대학 진학에 대한 과도한 열망을 일으키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에

대한 심리적 긴장과 압박감은 가족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부모의 과중한 기대를 일으키며,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는 물론 부모자녀간의 관계에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다(김경신, 1993). 그러나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유아기 또는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급속한 발달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상황이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지지/통제적 양육행동 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모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독립심을 키우는 양육행동을 제공하고(Belsky, 1984),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어머니는 영아에게 덜 반응적이며, 학령기 아동을 강압적이고 비밀관적으로 훈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ger et al., 1984; Forehand et al., 1985; Gerdes et al., 2007).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통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높을 때, 지지·통제적 양육행동을 적게 하였으며(송신영, 2007), 어머니가 역할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을 많이 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이병례 · 한세영, 2007). 이를 통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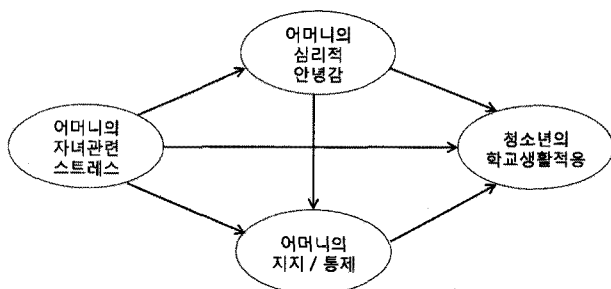
어머니의 지지/통제의 선행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양자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 진로 및 부모자녀관계 문제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인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졌고, 우울을 느끼는 빈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부모자녀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인순 · 김경신, 2001; 한미선, 1992; Barnett & Baruch, 1985; Umberson & Gove, 1989).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의 경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았다.

이상과 같이,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와 학교생활적응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몇몇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간의 경로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연구(Patterson, 1983; Putnick et al., 2008)에 따르면,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에게 더 짜증을 내고 이는 자녀의 공격적인 반응을 초래하였다. 여기서 아동의 공격성은 학교생활적응에서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또한, Hanish 등(1995)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문제가 많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질, 즉 양육행동에 의해서 매개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지지/통제 모두가 포함된 경로를 살펴본 연구들은 드물며, 특히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변인들 가운데 일부 변인들 간의 직접적, 간접적 관계를 밝힌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경로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를 통한 간접적 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의 자기보고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 발달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족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며 부모-자녀 간의 체계적 접근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들(Petersen, 1988; Steinberg, 1987)과,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과 어머니 둘 다 연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행동의 경우,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자녀의 발달에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들(김유진, 1995; 김희화, 2003; 박진경, 2001; 임정하, 2006; Patten et al., 2001; Stattin & Kerr, 2000)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가, 어머니의 지지/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이 보고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및 어머니의 지지/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



<그림 1> 연구모형: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는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 지역의 K구와 S구, 강북 지역의 D구와 E구에 소재한 4곳<sup>1)</sup>의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389명의 청소년들(남학생: 187명, 여학생: 202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중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에 학교 적응과 참여가 감소하고(Simon-Morton & Crump, 2003), 청소년의 학업적·심리적 기능에 변화가 나타나 학업적 능력과 학교가치감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이 감소되며, 수업이탈 혹은 무단결석 등과 같은 부적응 행동이 증가하기 때문이다(Roeser & Eccles, 1998). 특히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적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생활적응이 낮아져,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3학년은 더욱 낮은 학교생활적응 점수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구자은, 2000; 신철재, 1995)에 근거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이 176명(45.2%),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231명(59.4%)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79.4%)은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류'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어머니의 지지/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1)지역적 특징에 따라 예측될 수 있는 상이한 결과를 감안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Levene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에서 영가설은 '각 집단의 모집단 평균이 모두 같다'이며, 일원분산분석에서 만약 영가설이 기각되었다면 비교집단들의 모집단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해석한다(성태제, 2008). 등분산 검정 결과,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유의수준 .05에서 각각 .06, .38, .65, .16의 유의확률을 보여, '네 학교의 평균이 모두 같다'라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4개 학교는 모두 통계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학생	187(48.1)	가족구조	핵가족	320(82.3)
	여학생	202(51.9)		대가족	39( 7.5)
출생순위	외동이	36( 9.3)		기타	40( 7.7)
	첫째	148(38.0)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지각	상류	47(12.1)
	둘째	174(44.8)		중류	309(79.4)
	셋째이상	25( 6.4)		하류	29( 7.5)
부 연령	40세 미만	3( 0.8)	모 연령	40세 미만	25( 6.4)
	40세-54세	365(93.8)		40세-54세	364(93.6)
	55세 이상	18( 4.6)		55세 이상	0 (0.0)
부 교육수준	중졸이하	9( 2.3)	모 교육수준	중졸이하	9( 2.3)
	고졸	171(44.0)		고졸	231(59.4)
	대졸이상	176(45.2)		대졸이상	149(38.3)

척도는 청소년에 의해서 평가되었다.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는 한미선(1992)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한미선(1992)의 척도는 McCubbin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 1981), 이평숙(1984), 옥선화 등(1991)의 연구를 기초로 중년기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성한 것으로, 학업성적(4문항), 진로문제(4문항), 품행문제(3문항), 부모 자녀관계(5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총 16문항).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요인들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중학생 자녀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기 위해 품행문제 요인(예: 자녀가 가출을 한 적이 있다)을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인 중학생에게 부적절한 세 문항, 즉 학업성적 요인의 한 문항(자녀의 정기고사 성적과 모의 고사 성적이 불일치하여 걱정을 하였다)과 진로문제 요인의 두 문항(자녀의 입학시험 실패로 인해 재수를 한 적이 있다, 자녀가 집을 떠났다)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학업성적 요인(3문항), 진로문제 요인(2문항) 및 부모자녀관계 요인(5문항)의 3가지 요인(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학업성적의 경우 '자녀의 핵심과목 성적이 낮아서 걱정을 하였다', '자녀의 성적 때문에 걱정되었다' 등으로, 진로문제의 경우 '자녀가 중요한 시험에 실패한 적이 있어서 힘들었다', '자녀의 진로나 상급학교 진학 문제로 걱정을 하였다' 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자녀관계의 경우 '자녀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많다', '자녀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등의 문항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우선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사건의 경험 유무를 구분한 후, 경험이 없는 경우(1점), 경험한 경우에는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2점)', '거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3점)', '약간 마음이 상했다(4점)', '꽤 마음이 상했다(5점)', '대단히 마음이 상했다(6점)'로 평가하는 6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 사용한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는 학업성적이 .93, 진로문제가 .61, 부모 자녀관계가 .84이었다.

2)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김혜신(2003)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김혜신(2003)의 척도는 생활만족도(10문항)와 우울(10문항)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활만족도는 Olson과 Barnes(1982)의 Quality of Life, 김오남(1998), 이선미(2001)의 연구를 참고로 구성되었으며, 우울은 Radloff(1977)의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수정·보완하여 완성되었다. 생활만족도는 일상생활, 결혼생활, 자녀와의 관계, 경제상태, 여가, 현재 나의 위치와 역할, 친·인척 관계에 대해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우울은 슬프고 불행한 감정으로서 심리적인 역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김혜신, 2003). 문항의 예로는 생활만족도의 경우 '나의 일상생활은 대체로 만족스럽다', '나의 가정생활은 행복하다' 등을 들 수 있으며, 우울의 경우에는 '나는 근래에 들어 식욕이 떨어졌다',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등이 포함된다. 원 척도에서는 '보통이다'(3점)를 포함한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척도에서는 보다 분명한 응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Cron-

bach's  $\alpha$ 는 생활만족도가 .90, 우울이 .90이었다.

### 3) 어머니의 지지/통제

어머니의 지지/통제는 지지,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Barber, 1996). 어머니의 지지는 Schaefer(1965), Schuldermann과 Schuldermann(1988)의 CRPBI(Child Report of Parent Behavior Inventory)의 하위척도를 Barber, Stolz와 Olsen(2005)이 개정한 것을 번안한 후, 역 번역 작업을 거쳐 측정하였다. 심리적 통제는 Shaefer(1965), Schuldermann과 Schuldermann(1988) 등의 CRPBI를 기초로 Barber(1996)가 개발한 PCS-YSR(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을 번안한 후, 역 번역을 거쳐 측정하였다. 행동적 통제는 Barber 등(2005)이 사용한 척도를 번안하여, 역 번역 작업을 거친 후에 측정하였다. 하위요인별 문항 수는 지지 10문항, 심리적 통제 8문항, 행동적 통제 5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지 요인의 문항의 예로는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자주 미소 지어 주신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많이 보살펴주시고 내게 관심이 많으시다' 등을 들 수 있으며, 심리적 통제 문항의 경우 '내가 무언가 말하려고 할 때 화제를 바꾸신다', '내 일에 자주 참견하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행동적 통제 문항의 예를 들면 '내가 밤에 어디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계신다'와 같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로 평가하는 3점 Likert 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지지가 .88, 심리적 통제가 .78, 행동적 통제가 .73이었다.

### 4)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유은희(1994)가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와 원호택(1987)의 '학교생활 검사지'를 참고로 중·고등학생에게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교사관계(8문항), 교우관계(8문항), 학교수업(8문항), 학교규칙(8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원 척도에서는 '보통이다(3점)'를 포함한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보다 분명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수정한 4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교사관계가 .70, 교우관계가 .70, 학교수업이 .68, 학교규칙이 .63이었다.

### 3. 조사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9년 7월에 실시하였다. 서울시의 4개 구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청소년용 보고는 각 교실에서 학생들이 응답한 후 회수하였으며, 어머니용 보고는 청소년을 통해 배부·회수되었다. 배부된 452부의 설문지 중에서 411부가 회수되어 90.9%의 회수율을 보였고, 이 중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16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하고 총 389부가 본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전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관련 변인들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고,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chi^2$ 와 함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chi^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매우 엄격하여 내용이 쉽게 기각되며 표집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적합도 가운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NFI(Normed fit index)를 함께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RMSEA는 보통 .05이하일 경우 그 모델은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하고 .08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TLI, CFI와 NFI는 적합도 지수가 .90이상 일 때 그 모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해석한다(홍세희, 2000).

수집된 자료는 SPSS 15.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전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관련 변인들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고,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chi^2$ 와 함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chi^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매우 엄격하여 내용이 쉽게 기각되며 표집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적합도 가운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NFI(Normed fit index)를 함께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RMSEA는 보통 .05이하일 경우 그 모델은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하고 .08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TLI, CFI와 NFI는 적합도 지수가 .90이상 일 때 그 모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해석한다(홍세희, 2000).

## III. 연구결과

### 1.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분석에 앞서서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잠재변인에 속하는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교우관계와 학교규칙 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 참조).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변인들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는 12개의 상관계수 중 3개의 상관관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생활만족도는 청소년의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그리고 학교수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우울은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에 통계적으로 부적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지지/통제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지지와 심리적 통제 및 행동적 통제는 학교생활적응의 4가지 하위변인들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의 선행변인들인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과 지지/통제를 위한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두가지 경우(즉, 학업성적과 행동적 통제, 우울과 행동적 통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선행변인들 간

<표 2>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 (N = 389)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학업성적	-											
2. 진로문제	.59***	-										
3. 부모자녀관계	.37***	.34***	-									
4. 생활만족도	-.23***	-.19***	-.32***	-								
5. 우울	.25***	.27***	.35***	-.56***	-							
6. 지지	-.16**	-.14**	-.28***	.26***	-.18***	-						
7. 심리적 통제	.24***	.13**	.37***	-.18***	.13*	-.41***	-					
8. 행동적 통제	-.07	-.11*	-.12*	.11*	-.07	.36***	-.13*	-				
9. 교사관계	-.11*	-.01	-.03	.14**	-.11*	.32***	-.13**	.19***	-			
10. 교우관계	-.07	-.03	-.09	.22***	-.11*	.23***	-.17*	.16**	.35***	-		
11. 학교수업	-.18***	-.01	-.08	.15**	-.10	.17**	-.12*	.12*	.49***	.36***	-	
12. 학교규칙	-.07	.02	-.17**	.05	-.06	.16**	-.10*	.13*	.33***	-.04	.33***	-
평균(M)	4.31	3.58	2.47	2.83	2.15	2.31	1.70	2.28	2.71	3.03	2.58	2.54
표준편차(SD)	1.27	1.42	1.19	.53	.58	.46	.43	.49	.45	.46	.46	.44

\*p<.05, \*\*p<.01, \*\*\*p<.001

<표 3> 수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	df	CFI	NFI	TLI	RMSEA
지수값	98.99	46	.95	.91	.92	.05

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청소년 각각을 대상으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했을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남녀 청소년의 상관관계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isher의 z값으로 표준화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 66개의 상관관계수들 중 오직 한 가지 경우(즉, 진로문제와 학교규칙간의 관계)에만 남녀간의 상관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남녀 청소년에게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2. 측정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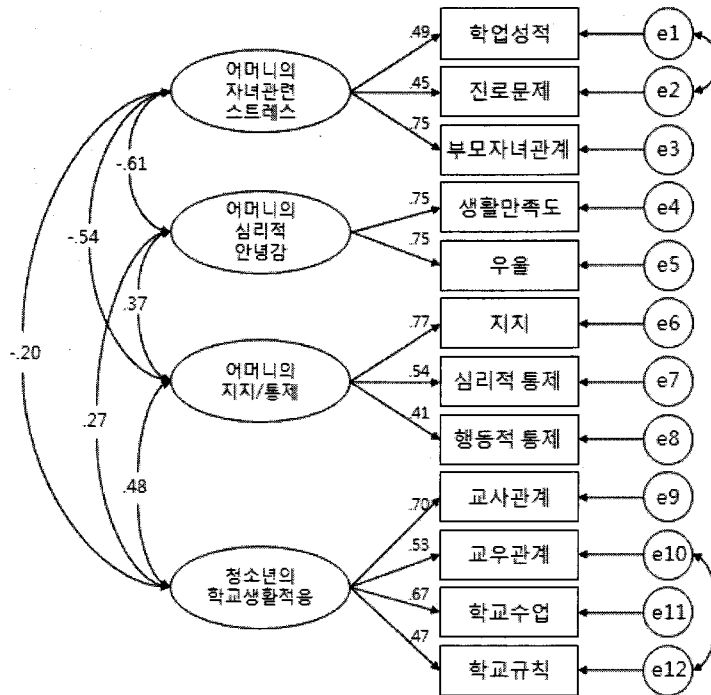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변인들 간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의 우울과

심리적 통제는 역코딩하여 같은 잠재변인에 속하는 측정변인들간의 방향성을 맞추었다.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beta$ )은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는데(김계수, 2007),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4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오차변량간의 공분산과 공분산에 대한 수정지수값(modification indices: MI)을 검토한 결과 측정변인간의 오차간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에, 공분산이 높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학업성적(e1)과 진로문제(e2), 그리고 교우관계(e10)와 학교규칙(e12)간에 공분산을 설정함으로써 모형을 수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98.99(df=46)$ ,  $\chi^2/df=2.15$ , CFI=.95, NFI=.91, TLI=.92, RMSEA=.05(90% 신뢰도=.04, .07)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을 충족시켜 모형의 적합성을 증명하였다(<표 3> 참조).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학업성적	1	.49	-
	진로문제	1.03***	.45	8.29
	부모자녀관계	1.44***	.75	6.33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1	.75	-
	우울	1.08***	.75	8.22
어머니의 지지/통제	지지	1	.77	-
	심리적 통제	.66***	.54	7.29
	행동적 통제	.57***	.41	6.13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1	.70	-
	교우관계	.76***	.53	7.84
	학교수업	.98***	.67	9.89
	학교규칙	.65***	.47	7.10

\*\*\*p<.001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지지/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98.99(df=46)$ ,  $\chi^2/df=2.15$ , CFI=.95, NFI=.91, TLI=.92, RMSEA=.05(90% 신뢰도=.04, .07)로 산출됨으로써,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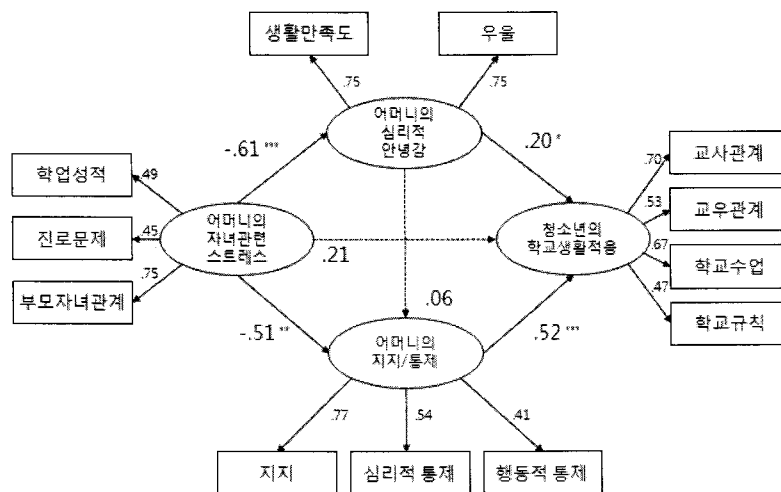
첫째,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1$ ,  $p>.05$ ). 둘째,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과 지지/통제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으나( $\beta=-.61$ ,  $p<.001$ ),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지지/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06$ ,  $p>.05$ ). 즉, 학업성적, 진로문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어머니는 생활만족도가 높고 덜 우울하였으나,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지지/통제적 양육행동은 서로 관련



<표 5> 잠재변인간의 경로계수

잠재변인간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07	.21	1.56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16	.20*	1.97
어머니의 지지/통제 →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82	.52***	4.21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 어머니의 지지/통제	-.11	-.51**	-3.29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 어머니의 지지/통제	.03	.06	.55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27	-.61***	-5.78

\*p<.05, \*\*p<.01, \*\*\*p<.001



주 1) 측정오차는 생략함.  
\*p<.05, \*\*p<.01, \*\*\*p<.001

<그림 3>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6>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지지/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변수 간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21	-.41	-.20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20	.03	.23
어머니의 지지/통제 →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52	-	.52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 어머니의 지지/통제	-.51	-.04	-.54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 어머니의 지지/통제	.06	-	.06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61	-	-.61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리적 안녕감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beta=.20, p<.05$ ),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청소년

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는 지지/통제적 양육행동( $\beta=-.51, p<.001$ )에, 지지/통제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beta=.52, p<.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 관련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낮으면 청소년들은 어머니가 더욱

지지/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지지/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았다(<표 6> 참조). 분석 결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지지/통제적인 양육행동이었으며( $\beta=.52$ ),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beta=.23$ ),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beta=.20$ )가 뒤를 이었다. 또한, 각각의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정도는 .26이었다. 즉,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분산의 26%를 설명하였다.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지지/통제의 분산을 30%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분산을 37% 설명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과 지지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어떠한 경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 경로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과 지지 및 통제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그리고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간접 경로를 포함한 구조적 연구모형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교사관계와 학교수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자녀의 학교규칙 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성적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청소년 자녀는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며, 학교에서의 수업에도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청소년은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한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직접적인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 형태인 공격성, 과잉행동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들(김현미·도현심, 2004; 문혜련, 1999; 유우영·이숙, 1998; Barry et al., 2009)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유아나 아동을 대상(김현미·도현심, 2004; 문혜련, 1999; 유우영·이숙, 1998)으로 하였거나, 남자청소년들(Barry et al., 2009)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와의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할 간접 경로와 관련하여 언급한다면,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적응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과 지지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각각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으나 심리적 안녕감과 지지 및 통제적 양육행동간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먼저,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고, 어머니가 덜 우울하고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다는 연구결과(송신영, 2007)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 내에서 중년기 어머니가 겪는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고인순·김경신, 2001; 진미정, 1993; 한미선, 1992)과 일치한다. 자녀의 대학 입학 전까지 자녀에게 쏟는 어머니의 에너지와 시간 투자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머니 역할의 내용과 수행양이 많으며(신기영·옥선화, 1987), 자녀와 관련된 어머니 역할 수행의 과중한 부담은 어머니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활만족도를 낮추고 우울을 유발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보였다는 선행연구결과들(Barry et al., 2009; Beardslee et al., 1983; Billings et al., 1983; Huntsinger et al., 1998; Klein et al., 1988)과 일맥상통한다. 즉, 어머니가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고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생활양식과 기술은 자녀에게 모델링되어(Badura, 1984), 자녀 역시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문제해결방식을 습득하며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및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는 지지/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 자신을 지지/통제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를 비일관적이고 강압적으로 양육하도록 하여 아동이 공격적인 반응과 반사회적 행동 등의 부적응 행동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들(Patterson, 1983; Synder, 1991)과 일치하였다. 또한, 부모가 일상적으로 겪는 자녀관련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Belsky & Vondra, 1989)와도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으로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주요 변인으로,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적이고 역기능적이며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박성연 등, 1996; 신숙재 · 정문자, 1997; 이주리, 2008; Abidin, 1992)과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함과 초조함을 경험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커져서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성적 행동보다는 감정적인 행동의 표출로써 강압적 행동이나 명령, 비난 같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지지/통제적 양육행동은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자신을 지지/통제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지지/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많은 연구결과들(배숙진, 1998; 배정미, 2008; 이경남, 2008; 이은영 · 김경혜, 2005; 정미영 · 문혁준, 2007; Gray et al., 1999; Ketsetzis et al., 1998; Jacobson et al., 2000; Shek, 1997)과 일치한다. 즉, 청소년들이 어머니에게 수용되며 지지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가 원만하였고, 어머니가 자녀의 생활에 대하여 적절하게 행동적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심리적 통제가 적을 때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청소년들이 부모의 엄격한 통제를 자녀의 자율적이며 자기지시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기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엄격함을 애정과 관심의 표현으로 여기고, 부모의 엄격함을 통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학업적,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위한 자애로운 간섭으로 여기며,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성취압력이 청소년들의 생활만족감과 학업성취도를 높였다는 연구결과들(박영신 · 김의철, 2000; Kim & Choi, 1994; Rohner & Pettengill, 1985)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적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지지/통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본 연구의 변인들 중 가장 큰 총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자녀관계는 출생 시부터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인간관계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 · 정서적 발달, 인격형성 및 사회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음(Bronfenbrenner, 1986)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양육관련 변인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부모의 자녀관련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행동문제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Belsky, 1984; Belsky & Vondra, 1989; Cummings, 1987; Cummings et al., 1989)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스트레스 자체가 자녀의 적응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보다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통해 형성되는 양육행동에 반영되어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어머니의 스트레스 인지 자체가 자녀의 적응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심리적으로 적응하여 대처하는가가 자녀에게 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지지/통제 각각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머니의 지지/통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었다. 이는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지지, 관심 및 감독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결과(McCombs et al., 1988)를 반영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 및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중학교 3학년과 그들의 어머니로 제한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발달적 특성이 다른 초등학교와 청소년기 중에서도 다른 연령층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달단계의 특성

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법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변인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면접법 또는 관찰법과 같은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결과들(Crouter et al., 1990; Jacobson et al., 2000)에 기초해 볼 때, 이후에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어머니와 관련된 선행변인들과 양육행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차이를 밝혀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관련된 선행변인이 청소년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환경 요인을 다루는 경우, 대부분 양육행동을 선행변인으로 시작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선행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그 영향력의 크기와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었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머니의 지지/통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대한 중재와 개입을 할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이들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를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응프로그램과 교육 외에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참 고 문 헌】

- 고인순 · 김정신(2001). 고3 수험생 어머니의 스트레스 인지,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65-90.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신(1993). 청소년자녀의 학업에 대한 가족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관련변인 분석. 가정과학연구, 3, 19-41.
- 김계수(2007). AMOS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동배 · 권중돈(2000).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김신애 · 이형실 · 임수경(2008). 남녀 청소년의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 및 행동문제의 관련성.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4), 1-17.
-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진(1995). '어머니의 모니터링'과 자녀의 학업능력, 행동간의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지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호(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미 ·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혜신(2003).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진(2003).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학교적응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화(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 도현심(1996).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1.
- 도현심 · 이희선 · 김상희 · 최미경 · 이사라(2011). 인간발달과 가족(개정판). 서울: 교문사.
- 류경희(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2), 147-168.
- 문은식 · 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문혜련(1999).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서영(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영(2009). 어머니의 감독과 청소년의 일탈또래와의 연합, 자아개념 및 외현화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 전춘애 ·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영신·김의철(2000). 부모자녀관계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중·고·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진경(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과 청소년의 외현화, 내면화 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선(1998). 부모-자녀관계와 공부압력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 사회적 문제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 93-118.
-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정아(2008). 중학생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8(3)**, 454-464.
- 성태재(2008).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송신영(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기영·옥선화(1987).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11-128.
- 신숙재·정문자(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신철재(1995). 학교생활적응,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간의 상관관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옥선화·이기춘·이기영·이순형·공인숙(1991).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135-154.
- 원호택·이민규(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1)**, 22-32.
- 유안진·이점숙·서주현(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학교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유우영·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양육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유윤희(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강선(199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학교생활 적응.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림(2008).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11-224.
- 이병래·한세영(2007). 취업모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1(1)**, 19-35.
- 이선미(2001).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영·김경혜(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0(1)**, 105-119.
- 이주리(2008). 어머니의 수용-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모형분석. *아동학회지*, **29(2)**, 57-71.
- 이재구·김영희(2000).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8(12)**, 145-158.
-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정순(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정하(2006).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의 보고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4(6)**, 103-111.
- 장영애·박정희(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9-85.
- 장재정(1987).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영·문혁준(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조윤미·이숙(2008).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641-658.
- 진미정(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구묵(1997).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치유방안: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사회복지연구소)*, **10**, 227-252.
- 최지은·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하미정·장영애(2010).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1)**, 33-51.
- 한미선(1992). 중년기 부인의 자녀문제에 의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숙영(2007). 부모애착, 부모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Bandura, A.(1984). 사회적 학습이론. 변창진·김경린 공역 (1984).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Barber, B. K.(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 Olson, J. E.(1997). Socialization in context: Connectio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and with pe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87-315.
- Barber, B. K., Olson, J. E., & Shagle, S. C.(1994).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1-151.
- Barnet, R. C., & Baruch, G. K.(1985).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135-145.
- Barry, T. D., Dunlap, S. T., Lochman, J. E., & Wells, K. C.(2009). Inconsistent discipline as a mediator between maternal distress and aggression in boy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31*, 1-19.
- Bean, R. A., Bush, K. R., McKenry, P. C., & Wilson, S. M.(2003).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of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5)*, 523-541.
- Beardslee, W. M., Bemporad, J., Keller, M. B., & Klerman, G. L.(1983). Children of parents with a major affective disorder: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40*, 825-832.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Vondra, J.(1989). Lessons from child abuse: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In D. Cicchetti & V. Carlson (Eds.), 박성연·도현심·정승원 공역 (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접근(pp. 26-33). 서울: 학지사.
- Billings, M. H., Hahn, C. S., Suwalsky, J. T. D., & Moos, R. H.(1983). Psychosocial process of recovery among alcoholics and their families: Implications for clinicians and program evaluators. *Addictive Behavior*, *8*, 205-218.
- Bradburn, N. 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dline Press.
- Bronfenbrenner, U.(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 Brown, B. B., Mounts, N., Lamborn, S. D., & Steinberg, L.(1993). Parenting practices and peer group affili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4*, 467-482.
- Bryant, F. B., & Veroff, J.(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653-673.
- Campbell, S. B., Morgan-Lopez, A. A., Cox, M. J., & McLoyd, V. C.(2009). A latent class analysis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over 12 years and offspring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3)*, 479-493.
- Conger, R., McCarty, J., Yang, R., Lahey, B., & Kropp, J.(1984). Perception of child, child-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ng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2234-2247.
- Crnicek,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outer, A. C., MacDermid, S. M., McHale, S. M., & Perry-Jenkins, M.(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49-657.
- Cummings, E. M.(1987). Coping with background anger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976-984.
- Cummings, E. M., Cummings, J. S., & Elsheikh, M.(1989). Children's responses to different forms of expres-

- sion of anger between adults. *Child Development*, 60, 1392-1404.
- Dornbusch, S., Ritter, P., Leiderman, P., Roberts, D., & Fraleigh, M.(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Dubois, D. D., Felner, R. D., Meares, H., & Krier, M.(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3), 511-522.
- Forehand, R., Lautenschlager, G., Faust, J., & Graziano, W.(1985). Parent perceptions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ve mood.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14, 1-3.
- Gerdes, A. C., Hoza, B., Arnold, L. E., Pelham, W. E., Swanson, J. M., Wigal, T., & Jensen, P. S.(2007).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arenting behavior: Exploration of possible mediat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35(5), 705-714.
- Gray, M. R., & Steinberg, L.(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574-287.
- Harnish, J. D., Dodge, K. A., & Valente, E.(1995). Mother-child interaction quality as a partial mediator of the roles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socioeconomic status in the development of child behavior problems. *Child Development*, 66, 739 - 753.
- Huntsinger, C. S., Jose, P. E., & Larson, S. L.(1998). Do practice to encourage academic competence influence the social adjustment of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747-756.
- Jacobson, K. C., & Crockett, L. J.(2000).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1), 65-97.
- Ketsetzis, M., Ryan, B. A., & Adams, G. R.(1998). Family process,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school-base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374-387.
- Kim, U., & Choi, S. C.(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Coo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pp. 226-25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lein D., Clark, D., Dansky, I., & Margolis, E. T.(1988). Dysthymia in the offspring of parents with primary unipolar affective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115-127.
- McCombs, A., Forehand, R., & Smith, K.(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roblem-solving style and adolescent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 57-66.
- McCubbin, H. I., Patterson, J. M., & Wilson, L. R.(1981).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Family Social Science Department,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 Morris, A. S., Steinberg, L., Sessa, F. M., Avenevoli, S., Silk, J., & Essex, M. (2002). Measuring children's perceptions of psychological control: Developmental and conceptual consideration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pp. 125-160).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lson, D. H., & Barnes, H.(1982). *Family inventory of quality of life.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Minnesota.
- Patten, G. C, Coffey, C., Posterino, M., Calin, J. B., & Wolfe, R.(2001). Paternal affectionless control in adolescent depressive disorder.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6, 475-480.
- Patterson, G. R.(1983). Stress: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pp. 235-264). N.Y.: McGraw-Hill.
- Petersen, A. C.(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583-607.
- Putnick, D. L., Bornstein, M. H., Hendricks, C., Painter, K. M., Suwalsky, J. T. D., & Collins, W. A.(2008). Parenting stres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self-concept in Europe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752-762.
- Radloff, L. 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 - 401.
- Roeser, R. W., & Eccles, J. S.(1998). Adolescents'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Relation to longitudinal

- changes in acade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1), 123-158.
- Rohner, R. P., & Pettengill, S. M.(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the Korean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chaefer, E. S.(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552-557.
- Schuldermann, E. H., & Schuldermann, S. M.(1988). *Children's report on parent behavior (CRPBI-108, CRPBI-30) for older children and adolescents*. Winnipeg, MB, Canada: University of Manitoba.
- Shek, D. T. L.(1997). Family environmen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8(1), 113-128.
- Simon-Morton, B. G., & Crump, A. D.(2003). Associ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ocial competence with school adjustment and engagement among sixth graders. *Journal of School Health*, 73(3), 121-126.
- Stattin, K., & Kerr, M.(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 Steinberg, L. D.(1987). Recent research on the family at adolescence: The extent and nature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Youth and the family*, 16(3), 191-198.
- Steinberg, L. D.(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 1-19.
- Synder, J.(1991). Discipline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maternal stress and mood on child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 263-276.
- Thomas, D. L., Gecas, V., Weigert, A., & Rooney, E.(1974). *Family socialization and the adolescent*.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Tompson, M. C., Pierre, C. B., Boger, K. D., McKowen, J. W., Chan, P. T., & Freed, R. D.(2010). Maternal depression, maternal expressed emotion, and you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1), 105-117.
- Umberson, D., & Gove, W. R.(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y, measurement, and stage in the family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440-462.
- White, M. F., & Kaufman, G.(1997). Language usage, social capital, and school completion among immigrants and native-born ethnic groups. *Social Science Quarterly*, 78, 385-398.

접수일 : 2011년 05월 15일

심사일 : 2011년 06월 09일

게재확정일 : 2011년 08월 13일